



무라카미 하루키가 말하는

억누르기 힘든 번역의 희열

신현호 | 번역가



원제 번역야화 翻譯夜話
ほんやくよばなし
저자 무라카미 하루키,
시바타 모토유키 공저
출판사 문예춘추文藝春秋
ぶんげいしゅんしゅ

우리나라에서 두터운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일본 소설가 중 한 사람을 들라면, 단연 무라카미 하루키를 꼽지 않을 수 없다. 하루키는 장편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로 문단에 나온 이래 《노르웨이의 숲》(우리나라에서는 ‘상실의 시대’로 잘 알려져 있다) 등 열 권 남짓 되는 장편을 비롯 단편, 장편掌篇, 에세이, 기행문, 대담집 등 어느 한 장르에 머무르지 않고 폭넓게 작품활동을 하는 작가로도 유명하다. 또한 창작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서도 틈틈이 양서洋書 번역 일에도 열의를 보여 《레이먼드 카버 전집》 등 이미 스무 권이 넘는 역서를 출간한 바 있다.

이처럼 하루키는 지명도가 높은 작가이면서 왕성한 번역활동에도 많은 시간을 들이는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하지만 그의 이력을 독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단지 번역서가 많아서라기보다 소설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번역가로서도 확고한 자기만의 세계를 펼쳐 보이고 있다는 부분에서 찾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번역야화》는 익히 알려진 소설가로서가 아니라, ‘번역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또 다른 세계를 엿보게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책이라 할 수 있다. 《번역야화》는 도쿄대학의 시바타 모토유키 조교수와 번역학교 학생들, 그리고 여섯 명의 젊은 번역가들이 한데 모여 세 번에 걸쳐 개최한 포럼 내용을 모아 엮은 책이다. 그리고 이 포럼에 초대손님으로 참가한 무라카미 하루키는 시바타 조교수와 참가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을 빌려 자신의 번역관을 피력한다. 하지만 책이름에 ‘야화’라는 단어를 붙인 만큼 내용은 비교적 부담이 없다.

이 책의 전체 구성을 보면, 하루키가 먼저 머리말을 쓰고, 세 번에 걸쳐 개최된 포럼 내용이 장을 달리하여 소개되고 있으며, 시바타의 맺음말이 대미를 장식한다. 하루키는 우선 ‘번역의 신神’이라

이름을 단 머리말을 통해, 번역이란 자신에게 무한한 즐거움을 안겨주기 때문에 스스로도 불가사의하게 여길 정도로 거기에 매달리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번역에 힘을 쏟게 되는 필연성에 대해서는, 마치 하늘 어딘가에서 ‘번역의 신’이 내려다보고 있는 듯 따사로운 시선을 느끼기 때문이라며 알쏭달쏭한 설명을 덧붙인다.

이어지는 포럼1~3은 이 책의 본문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하루키와 시바타가 질문을 주고받는 가운데 더러 참가자들도 가담하는 형식을 취하며 번역과 관련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나눈다. 특히 포럼2의 뒷부분에는 하루키와 시바타가 동일한 작품을 제각기 번역한 두 편의 콩트(권말에 원문이 있다)를 실어놓음으로써 포럼1, 2에서 드러난 두 사람의 번역취향을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여섯 명의 젊은 번역가들과 함께 한 포럼3에서는, 위 두 작품의 번역을 둘러싸고 참가자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진다. 문맥과 자구의 미묘한 차이까지 들어가며 격론을 주고받는 이 시점부터는 시중 번역의 경연장을 방불케 하는 긴장감이 감돌게 된다.

이상의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이 책의 중심 테마는 분명 ‘번역’이다. 그러나 이 책은, ‘번역은 제2의 창작’이라는 고무한 표현을 들먹이며 번역을 예찬한 책도 아니며, 번역요령을 다룬 실용서는 더더욱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로지 창작물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왜 번역을 하면서 그토록 억누르기 힘든 희열을 느끼는지 해답의 실마리를 찾게 해주는 책일 따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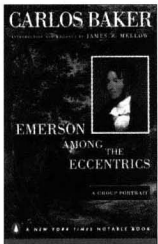
하루키는 번역에 몰두하며 창작의 고된 짐을 잠시 내려놓고 일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해방감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따라서 그가 말한 ‘번역의 신’이란, 어쩌면 일상으로부터 벗어난 그 해방감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는지... **※**



이상을 실현코자 했던 작은 마을

초절주의자들의 집단 초상

최애리 | 번역가



원제 에머슨과 괴짜들
Emerson among
the Eccentrics
저자 Carlos Baker
출판사 Viking Pengu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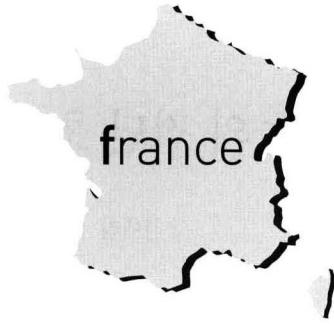
콩코드Concord는 보스턴에서 북서쪽으로 약 30킬로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이다. 17세기에 초기 이주자들과 인디언들 사이의 화합concord의 표시로 그렇게 이름 붙여졌다는 이 마을은 미국 역사에서는 독립전쟁의 사적지로 꼽힌다. 즉 1775년 영국군의 침공에 대해 최초의 무력 저항이 일어난 곳이라는 것이다. 붉은 군복을 입은 영국 정규군과 엉성하게 무장한 농부들 사이에 총탄이 오가는 최초의 전선이 되었던 것은 콩코드 북쪽, 노스 브리지North Bridge라는 조그만 목교木橋가 놓여 있는 개울이다. 다리 근처, 개울을 뒷마당에 끼고 있는 목사관의 주인 윌리엄 에머슨 역시 그 싸움터에 있었고, 군대를 따라 전쟁에 나갔다가 이듬해에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콩코드를 유명하게 한 사람은 그 에머슨이 아니라 그의 손자인 랄프 왈도 에머슨(1803~1882)이다. 1835년 그가 조부의 옛집이 있는 고향에 정착하면서부터, 그와 교류하던 문인·사상가들이 하나 둘 콩코드로 모여들었던 것이다. 마을 외곽의 월든 호반에서 자연 속의 삶을 실천했던 《월든》의 저자 헨리 데이빗 소로우를 위시하여, 실험적 교육사상가였던 에이머스 브론슨 울코트, 그의 딸로 《작은 아씨들》의 저자였던 루이자 메이 울코트, 《주홍글씨》의 저자 나사니엘 호손 등이 모두 이 마을에 살았다. 그 밖에도 엘리리 체닝, 존 베리, 허만 멜빌 같은 시인·작가들, 마거릿 풀러, 엘리자벳 피바디, 세러 리플리 같은 지적인 여성들이 그 시절 에머슨의 콩코드에 활력을 불어넣은 인물들이다.

이들은 초절주의자Transcendentalists라 불리곤 하는데, 초절주의란 제도화된 교회 및 신학을 벗어나 자유롭게 세계를 대면하되 합리적 이성을 넘어서는 직관을 통해 자연과 인간 속에 내재하는 신성을 발견한다는 일종의 신비적 범신론에 해당한다. 그러한 근본 태도로부터 인간의 내재적 지성과

직관력에 의거한 교육,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노예해방 및 여권신장 운동, 자연과 인간의 원초적 조화를 추구하는 실험농장 사업 등등이 파생되었다. 이런 운동들은 인류 역사를 통해 누적된 모든 편견과 인습을 일소하고 자연 상태로 돌아가 새로운 인간사회를 건설하고자 했던 이상주의의 발로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초절주의는 일관되고 체계적인 철학이라기보다는 실천지에서 말 그대로 새롭고 자유롭게 눈떴던 삶의 태도요, 감수성이라고나 할 '무엇', 그 시절 그 사람들 사이에서 실제로 살아졌던 '무엇' 이었다.

칼로스 베이커의 《에머슨과 괴짜들》(원제를 직역하면 '괴짜들 사이의 에머슨' 이 된다)은 바로 그러한 한 세대의 삶을 그려낸 집단 초상group portrait이다. 가난하고 소박하고 열정적인 시절, 개개인이 꿈꾸는 이상을 현실로 옮기는 것이 극히 당연한 일로 생각되던 시절에 그러한 이상을 함께 나누던 친구요, 이웃이었던 사람들의 애환이 소설보다 더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에머슨은 다른 사람들의 이상과 천품을 알아보는 데 비상한 재주가 있었다. 누구보다 높은 이상을 추구하면서도 현실적 판단력을 잃지 않았던 에머슨을 중심으로, 괴짜 중의 괴짜였던 브론슨 울코트, 그들 곁에서 수수하고 충직한 친구가 되어주었던 소로우, 신선살림을 차렸던 콩코드를 잊지 못해 오랜 유럽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왔던 호손, 그리고 그 밖의 많은 사람들... 이제는 모두가 마을 뒤편 공동묘지 슬리피 할로우 Sleepy Hollow에 묻혀 있는 옛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그런 시대를 역사상 달리 찾아볼 수 있을까. 온갖 이상들이 조롱당하는 오늘날, 그 시절 그 사람들의 숨결을 느껴보는 것은 드물게 신선한 경험이 될 것이다. ✎



‘올드보이’ 처럼 금기를 침범하는 ‘이탈리아 보이 Italia Boy’

한소원 | 신원에이전시



원제 Un garçon d'Italie
이탈리아 보이
저자 Philippe Besson
출판사 Julliard

요즘 흥행하는 영화를 들어 글 제목을 붙여봤다. 어쩌면 이 책의 내용과 <올드보이>라는 영화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 영화 <올드보이>의 비극이 근친상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필립 베송 Philippe Besson의 신작, 《이탈리아 보이》는 ‘동성 연애’라는 금기의 침범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소설의 내용을 차치하고서라도 극적 구성조차 매우 영화적이다. 이 책은 그 길이나 표현방식 면에서 서로 다른 네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장의 서두에는 세 명의 서술자, 루카Luca, 레오Leo 그리고 안나Anna 라는 이름이 붙여지는데 이들 모두는 이 책의 주인공들이다. 즉 두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 산 사람 두 명(레오와 안나)과 죽은 사람 한 명(루카)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에게 큰 방해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첫 장은 마치 연극과도 같아서 장막이 열리면 우리는 공연 팜플렛을 열핏 훑어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의 실마리를 그려보아야 할 것이다. 루카의 시체가 아르노 해안가의 물에 떠오르는 것으로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사실 그의 실종은 그의 애인, 안나로부터 예고되었다. 제일 처음 망자, 루카가 그의 죽음을 독자에게 생생하게 들려준다. 사후강직 이후 자신의 몸이 부드럽게 되면서 서서히 부패되는 과정과 후회 없는 죽음을 이야기한다. 그런 다음 그는 레오와 안나에 대한 그의 감정을 털어놓는다. 독자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그의 죽음이 이 두 사람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이다.

루카는 안나를 사랑하지만 어느 날 레오를 만나고 그의 이중생활이 시작된 것이었다. 한편 안나는 그의 갑작스런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놀라고 있다. 그녀는 죽은 루카의 애인이다. 그녀는 사랑과 관용, 존경심 그리고 조심스러움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마침내 그녀가 맞춰놓은 서류의 한 조각이 부

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그 부족한 조각을 찾는 작업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놀라운 사실은 그녀의 애인, 루카에게 다른 연인이 있었다는 것인데 루카가 사랑하는 이는 또 다른 남자, 레오였다.

이 작품에 존재하지 않는 머리말, 곧 레오는 다른 두 주인공의 말을 중도에 끊지 않고 끝까지 그의 차례를 기다린다. 그의 차례가 왔을 때 그는 안나와 마찬가지로 그의 사랑과 관용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이 사건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이라는 것을 안다. 그는 젊고 아름답다. 그는 직업적으로 몸을 파는 남창이다. 이탈리아 플로렌스 역에서 루카와 레오는 우연히 만났다. 역 화장실에서의 사랑은 루카가 죽어 폐기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명 어떠한 연관이 있다.

루카는 살해된 것일까? 아님 자살이었을까? 각각의 주인공, 죽은 루카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 캐묻는다. 얼핏 보는 것과는 반대로 《이탈리아 보이》는 모호한 소설이 아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 책을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는 것만큼 작가가 독자들에게 말하는 바를 쉽게 간파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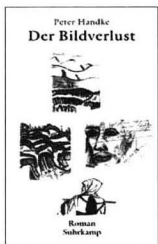
영화 <올드보이>에서 남동생과 근친상간을 해 자괴감에 빠진 누나가 죽는 이유를 《이탈리아 보이》에서 루카의 죽음에 빗대면 지나친 억지일까? 하지만 영화처럼 읽혀지는 필립 베송의 소설은 영화 <올드보이>를 보고 영화관을 나설 때의 감정과 맞닿아 있다. 불편함과 어색함, 그것은 우리의 원초적 감정을 사회적 틀로 애써 제어했을 때 오는 반작용이 아닐까 싶다. **한소원**



변화무쌍한 이야기들로 밝혀내는

‘보다 위대한 시간’

서은미 | 에릭양 에이전시



원제 잃어버린 영상
Der Bildverlust
저자 Peter Handke
출판사 Suhrkamp

《잃어버린 영상 *Der Bildverlust*》은 《관객 모독 *Publikumsbeschaempfung*》과 《카스퍼 *Kaspar*》로 널리 알려진 오스트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 페터 한트케 Peter Handke의 신작 장편소설이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성공한 커리어우먼인 ‘그녀’에게는 유달리 적이 많다. 그러나 대부분은 사소한 험담이나 늘어놓는, 그다지 위협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다. 단 한 사람만 제외하고는. 그 한 사람이 바로 그녀와 그녀의 인생에 있어 용서할 수 없는 최악의 적인 셈이다.

그레도스 Sierra de Gredos 산맥의 정상에는 서쪽 방향으로 나 있는, 마치 평야와 같은 느낌을 주는 널찍한 공터가 200킬로미터 정도에 걸쳐 펼쳐져 있는데 이곳은 3, 4월의 따뜻한 봄날에도 여전히 눈으로 뒤덮인 차가운 곳이다.

그곳을 향해 그녀가 여행을 떠나면서 이야기는 시작되고, 여행의 노정을 따라 펼쳐지는 갖가지 모험담이 이 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항구도시를 벗어나 숲과 산을 향해 떠나는 도시인의 여행. 원래는 산맥을 가로질러 그 너머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그녀와 ‘납품계약’을 맺고 거래관계에 있는 작가를 만나는 것이 그녀의 주된 계획이었다. 여러 개의 가명을 동시에 쓰면서 독일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잘 나가는 회계감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녀는, 어릴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여윈 후 조부모님과 함께 벤드족(Wende, 독일 엘베강과 잘레강 동쪽에 사는 슬라브계 민족의 총칭)의 집단 거주지에서 자라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독특한 성장기를 경험했고, 젊은 시절에는 한때 배우로 활동하면서 비교적 성공작이라는 평가를 받은 영화에도 출연한 적이 있다. 그녀와 작가 사이에는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그녀는 작가에게 돈을 지불하고 작가의 재정

조언을 해주는 대신 작가는 그녀의 인생이야기를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재구성해서 그녀에게 다시 들려주는 것이 그들이 맺은 계약의 내용이다. 작가의 이야기를 평가하는 그녀의 기준은 단 하나. 그녀의 인생을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 무엇’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 그녀에게 들려주는 작가의 이야기(실은 그녀 자신의 이야기)에는 방랑벽이 있는 어느 기묘한 여인과 그녀가 여행길에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버스 운전 기사와 그의 아들 이야기, 떠돌이 석공과 구금을 부는 악사 이야기, 변두리에 사는 어느 백치와 그의 연인 이야기 등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는 바로 오랜 수감생활을 마감하고 출소한 그녀의 오빠와 어린 시절 행방불명된, 그러나 지금까지 그녀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살아서 늘 그리움을 느끼는 그녀의 여동생에 관한 이야기이다.

《잃어버린 영상》은 과거와 미래, 현실의 시간과 꿈속에서의 시간이 한꺼번에 뒤엉켜 각양각색의 이미지와 상징으로 ‘지금 이 순간’ 속에 녹아들어 있는 소설이다. 직관과 사랑, 선, 아름다움, 평화, 이 모든 것이 뜬구름 같은 유토피아적 가능성으로서만이 아니라 변화무쌍한 이야기 속에 재현됨으로써 살아 숨쉬는 생명력을 터득하게 되는 ‘보다 위대한 시간’이 바로 페터 한트케가 이 책을 통해 다루고자 한 주제이다. 인간과 동경에 대한 또 한 편의 위대한 소설임을 확신한다. **추천**